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 2

4th Week

목 차

■ 본문

1. ITU-T, VoLTE/ViLTE 상호연결 프레임워크 개발
2. 중국, 중국제조2025 및 인터넷+ 이행 강조
3. TTC, 스마트기기, 클라우드 등 전문위원회로 이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ITU-T, VoLTE/ViLTE 상호연결 프레임워크 개발

(ITU-T to develop framework for VoLTE/ViLTE interconnection)

보도날짜 2016.01.22

출 처 ITU

사 이 트 <http://newslog.itu.int/archives/1203>

- 2016년 1월 22일, ITU-T는 Voice and Video over LTE(VoLTE/ViLTE) 기반 네트워크 상호연결 관련 프레임워크의 국제적 협정 이행을 위한 ITU-T 표준사업 착수를 발표함
 - 위 프레임워크는 업계가 제공하는 VoLTE/ViLTE '로밍(roaming)'의 확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패킷기반(packet-based)의 고품질 음성 및 비디오 통신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 간 소통을 가능케 할 것임
 - 이번 표준사업은 VoLTE/ViLTE 서비스 상호운용성 개선을 목적으로, '시그널 요구사항, 프로토콜, 시험규격'을 담당하는 ITU-T SG11이 수행할 예정임
 - LTE 기반 네트워크 가입자 간 상호연결은 고객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고품질 VoLTE/ViLTE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현재 VoLTE/ViLTE 상호연결 기능이 포함된 수많은 표준들이 있음에도, 국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표준이 적용된 응용 프로그램들의 균일성이 부족하여 VoLTE/ViLTE 서비스 품질과 VoLTE/ViLTE 로밍 제공 능력 부분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15년 12월 'ITU VoLTE/ViLTE 워크숍'의 결과로 SG11 후속회의를 개최하여, 'VoLTE/ViLTE 기반 네트워크의 상호연결 프레임워크'에 관한 국제적 협정 체결을 위한 ITU-T 신규 표준 개발에 착수하였음
 - 추후, SG11은 기존 VoLTE/ViLTE 표준의 '격차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하고 VoLTE/ViLTE 상호연결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명시할 예정으로, 새로운 ITU-T 표준은 VoLTE/ViLTE 상호연결 기능을 가능케하는 기존 표준의 균일성 문제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사업은 기존 표준 개정 및 VoLTE/ViLTE 상호연결과 관련한 통합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다른 표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수반될 예정임

- 네트워크 운영자는 ITU-T의 VoLTE/ViLTE 표준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GSMA 및 ETSI의 TC INT(코어 네트워크/상호운용성 시험 기술위원회)와 그 외 A1 오스트리아 텔레콤 AG, 이탈리아 텔레콤, 로스텔레콤, 도이치 텔레콤, NEC는 이번 표준 사업에 관심을 표명함
- VoLTE/ViLTE의 ITU-T 작업은 VoLTE 상호연결을 위한 시그널 프로토콜, 관련 넘버링 문제, 서비스 품질(QoS) 고려사항, VoLTE 기반 네트워크를 요하는 긴급사항의 배치 등으로, 본 작업은 ITU-T SG에 의해 수행될 예정임

2. 중국, 중국제조2025 및 인터넷+ 이행 강조

(看李克强如何布局“中国制造2025”)

보도날짜 2016.01.27

출 처 USITO

사 이 트 <http://usito.org/news/premier-li-keqiang-promotes-manufacturing-2025-and-internet-plus-integration-based-development>

※ 참고: http://www.gov.cn/xinwen/2016-01/31/content_5037818.htm

- 2016년 1월 27일, 중국 국무원 상무(이사)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2025 및 인터넷+ 통합 발전”을 강조함
 - 중국이 아직은 제조강국(powerhouse)이라기 보다는 제조대국(big country)이라 언급하며, 제조강국에서 제조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시장에 적응하며 주도적일 수 있는 시장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강조함
- “물리정보 융합”이라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써, “중국제조2025”는 “인터넷+”과의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인터넷과의 통합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기술 등이 포함됨
 - 현재 산업 추세는 산업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C2B 산업(소비자 요구가 제품에 반영), 3D프린팅(소비자의 개별요구 수용), 자동차 산업(고정된 생산라인에서 유연한 생산라인으로의 변화) 등이 있음
 - 전통적 중국산업의 구조는 ‘계획경제’로, 향후 新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도록 제조업과 인터넷과의 융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일례로, 작년부턴 온라인쇼핑 증가에 따라 택배업이 함께 성행하고 있음
 - 인터넷과 제조산업의 융합을 위해 시장 중심, 기업 주도를 지원하여 중국 제조산업의 가치사슬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리총리는 언급함

- 더불어, 총리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제조2025”, “독일산업4.0¹⁾”, “한국제조업혁신3.0²⁾”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번 ‘중국제조2025’ 강화하기 위해, 아래의 5가지 측면을 제안함
 - ① 제조 산업의 새로운 기반 구축
 - 자동 제어, 인지 기술(perception technology), 산업용 클라우드 및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산업용 인터넷 등
 - ② 11개의 이행지침, 행동계획, 특별 계획 등 발표(지능형 제조, 그린 제조 분야 등)
 - ③ 중국제조2025 특별 기금 설립
 - ④ 표준 구조의 강화
 - ⑤ 제조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혁신 강화

1) 독일의 산업 4.0: 제조업발 IoT로써 독일의 산업 생산공정을 최적화하자는 4차 혁명으로, ‘산업 4.0’을 통하여 향후 5년간 18%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공장뿐만 아니라 거래처, 물류, 에너지 그리고 종업원의 작업방식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최적화를 도모. 독일정부는 2011년에 4.0 구상을 내놓고 여기에 2억2천유로(약 2800억원)를 투자해 각지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독일의 4.0은 외부개방이 전제인 오픈플랫폼, 그리고 Coopetition(경쟁+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출처: 프리미엄조선]

2) 한국의 제조업혁신 3.0: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제조업의 新 패러다임에 맞춰 세운 전략으로,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함. 3대 전략으로는 융합형 新 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등이 있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3. TTC, 스마트기기, 클라우드 등 전문위원회로 이관

보도날짜 2016.02.08

출 처 TTC

사 이 트 <http://www.ttc.or.jp/j/info/topics/20160208/>

- TTC는 기획전략위원회 내 기술조사 자문그룹(AG)에서 표준화 과제의 발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의 과제 발굴에 관한 자문그룹 검토가 완료된 것은 전문위원회로 이관함
- TTC 표준화 활동에 있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AG' 및 표준화 전략 검토를 위한 국내외 '포럼 조사활동' 및 분석의 '기술조사 AG'는 지속적으로 자문그룹 활동을 계속할 예정

< 전문위원회 이관 자문 그룹(AG) >

자문그룹(AG)	이관 전문위원회 등	비고
스마트커뮤니케이션 AG	업계 간 혁신본부	
- 스마트자동차 WP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 스마트자동차 SWG	2015년 11월부터 활동 중
- 긴급접근성 WP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 접근성 SWG	2015년 9월부터 활동 중
- e-health WP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 전자정보 건강관리 SWG	2015년 7월부터 활동 중
- 재난대응 WP (ITU-T FG-DR&NRR 대응)	SG2 관련: 번호계획 전문위원회 SG15 관련: 광섬유 전송 전문위원회 (기존 전문위원회의 과제에 대응)	ITU-T FG-DR&NRR -> SG2, SG15 이관에 따라, 기존 과제에 대응 중
클라우드 컴퓨팅 AG	NGN & FN 전문위원회	클라우드 SWG (가칭) 설치 준비 중
상호운용성 AG	신호제어 전문위원회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 IPTV-SWG (IPTV 등 상호접속 관계)	2016년부터 기존위원회에서 활동 예정